

큰 것은 좋은 것?

Bigger is Better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가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10조를 돌파한 S전자, 그 뒤를 숨 가쁘게 추격하는 H자동차 등 이런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 엄청난 이익이 내 것은 아니나 우리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백화점을 생각해보자. 쾌적하고 넓은 S백화점, L백화점만 기억나고 그다음 규모의 백화점은 어느새 기억에서 또 실제로도 경쟁력을 잃었는지 사라져버렸다. 또 각 일간신문을 도배하다시피 광고를 해대는 대규모 복합상업문화시설은 또 어떤가? 작은 규모의 시설들의 광고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실제로 대규모 복합시설을 시행하는 젊은 사장을 아는데 그 규모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몇 만 평 규모이다. 상업시설들 간에도 규모의 경쟁이 된 것 같다. 만약 같은 장소에 두개의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두 개 중 한 개의 시설로 사람들이 몰릴 것은 틀림없는데, 이때 규모가 큰 시설이 이길 가능성이 100%다. 한쪽 시설입장에서 보면 비극이다.

문화를 표방한 게임에서는 경쟁보다는 공존이 제격일 텐데 자본력의 싸움 크기의 싸움, 이런 경우는 겉으로 웃을 뿐 사활을 건 싸움이 아닌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닌가?

건축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10년 전만 해도 큰 사무실과 작은 사무실들이 서로 공존하는 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MF를 거치고 요즘도 건축불경기가 장기화하다 보니 건축주들은 더욱 큰 사무실을 선호하게 되었다. 불투명한 사회 속에서 보다 믿음이 가는 큰 사무실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작은 사무실들은 점점 더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인사동 거리를 가본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상점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을 유도한다. 이곳에 갑자기 대형 상점이 들어와 “우리 집에는 인사동 가게 곳곳에 있는 모든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문을 연다면 그것은 왠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전에 필자가 건축가 김수근 선생 사무실에서 실습생 노릇을 할 때만 해도 12명 정도의 직원들이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건축이란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 당시 생각한 것이 화가, 음악가, 소설가와같이 건축사를 같은 반열에 놓고 다만 건축 작업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조직이고, 그렇다면 12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몇 백 명이나 된 설계조직을 거느린 소위 선단규모의 대형 조직들이 설계비가 몇 십억이나 되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의 사무실들이 하는 일과 대형조직이 하는 일들이 나뉘어 가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심지어 작은 일들조차도 큰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심화되어 간다고 한다. 초원에 비유하면 큰나무 몇 그루만 남고 관목이나 풀들은 없는 사막화된 초원이 연상된다.

건축을 종합예술이니 어쩌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쏟아 만들어가다 보면 설계할일도 차차 많아지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되었다. 한번은 규모가 제법 되는 건축경기설계에서 바로 앞의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은 직원이 300명이고……”하면서 멘트를 시작한다.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경기설계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맡기면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뜻 아닌가? 그다음 순간 “저희 사무실 직원은 12명입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작은 사무실에 우리 일을 어떻게 맡기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사무실은 큰 건물 실적이 없다고 보기 좋게 떨어졌다. 자본주의 논리, 크기의 논리,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작은 것은 설자리를 잃어가는 것이다. 다행이 우여곡절 끝에 그 일을 맡기는 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든 한판이었다.

땀을 생각해보자. 큰 돌과 작은 돌, 모래, 흙까지 함께 모여 커다란 둑이 되고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아닌가? 큰 돌만 있는 둑이 성립될 수 있는가? 모든 건축일을 다 처리하는 사무실 몇 개만 존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작은 일에 혼신의 힘을 쏟는 젊은 건축사들의 설자리는 어디일까?

작은 사무실과 큰 사무실이 공존하여 건축문화라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일까? 건축계에까지 배어들어온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들이 건축계 전반을 서서히 고사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하다. 삼성이 한남동에 세운 리움(LEEUM)을 가봤다. 마리오 보타, 렘 콜하스 장 누벨 등 세 명의 저명 건축가가 세운 멋진 건축이다. 건축주는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사무실의 규모를 보고 고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업적을 보고 골라냈을 것이다. 우리 건축계도 사무실의 크기만 보고 골라 일을 맡기는 황량한 풍토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일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책을 쓴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환경보호운동가인 슈마허(Ernst F. Schumacher)는 구미의 성장지상주의 경제구조를 거칠게 비판하면서 '작은 것'을 지향하는 '인간을 위한 경제구조'를 힘주어 부르짖었다.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고 믿는 슈마허는 인류가 가야할 진정한 발전의 길은 유물론적인 거대경제체제의 질주나 인습에 얽매인 전통주의의 정체를 모두 버린 중용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중용의 상태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체제를 가리키는데, 인류는 이런 중용의 상태에서만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슈마허는 대량생산체제를 때려 부수고 지역과 주민 중심의 소규모 작업장들을 경제구조의 뼈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새삼 와 닿는 시기이다. ㉮